

國際協力

—第16次 日原産年次大會에서 發表—



金 善 昶
(韓國電力公社 理事)

第16次 日本原子力産業會議 年次大會가 “原子力産業—成熟化로의 課題와 展望”이란 基調테마로 지난 3月23日부터 25日까지 日本 東京에서 3個國際機構, 24個國에서 720여명이 參席한 가운데 開催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招請패널 리스트인 金善昶 韓國電力公社 理事를 비롯 6명이 參加하였다. 다음은 同大會에서 國際協力에 關하여 金善昶 理事가 發表한 內容이다.

開發途上國과 先進國間의 國際協력이 어떻게 追求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見解를 설명하기 전에 먼저 韓國에서의 原子力 必要性和 全般的인 原子力發電事業 遂行을 책임지고 있는 韓國電力公社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國際協力の 現況을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韓國에서의 原子力 必要性

世界의 景氣가 장기간 沈滯됨에 따라 原子力 産業도 부진한 상태에 있지만 韓國은 原子力에 너지를 계속 적극적으로 開發하고 있는 나라중의 하나이다. 그 主要理由는 國家需要를 충족시켜줄만큼 충분한 國內에너지資源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비록 현재 原油價格이 下落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一時的 現象일 것이기 때문에 韓國과 같이 에너지資源이 부족한 國家들에서의 原子力利用은 安定된 에너지供給源의 確保라는 見地에서 以前보다 더욱 增加할 것으로 판단된다

韓國은 1978年 以後 原子力 1號機(587MWe)를 성공적으로 運轉하고 있고 그 利用率도 점점 向上되고 있으며 現在 試驗運轉段階에 있는 다른 2基의 發電所도 가까운 장래에 商業運轉에 들어갈 예정이다. 그외에 950MWe級 6基가 建設中인바, 1991年에 가면 全体原子力發電容量은 9.4GWe에 달해 總電力設備容量의 39.7%를 占有하게 될 것이다.

國際協力活動의 現況

지금까지 韓國은 原子力의 平和的 利用을 基本原則으로 하여 外國의 機構와 密接한 協力關係를 維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그 결과 韓國의 原子力事業을 遂行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들을 解決할 수 있었다.

韓國電力公社의 國際協力活動은 세가지 形態로 分類된다. 즉, 5個國과 技術情報交換計劃, 2個國에 技術者派遣訓練計劃, 2個國의 海外原子力機構 參與 등이다.

① 技術情報交換計劃 : Ontario Hydro(캐나다), Taiwan Power Company(대만), CNEA(아르헨티나), Belgian Utilities(벨기에), Electric Power Development Co.(일본)

② 技術者派遣訓練計劃 : Taiwan Power Company(대만), Kyushu Electric Power Company(일본), Overseas Electrical Industry Survey Institute(일본)

③ 海外原子力機構參與 : AIF(미국), INPO/NSAC(미국), W Group(미국), Information Center on Nuclear Standards(미국), CNA(캐나다)

國際原子力協力에 대한 見解

韓國은 지금까지의 國際協력을 통하여 問題解決에 많은 도움을 받았지만 實際的인 經驗과 技術獲得에는 迅速한 意思疏通의 難點, 地理的 거리 및 當事國間的 文化的 背景의 차이에서 오는 思考方式의 차이 등으로 인하여 여러가지의 制約이 認識되고 있다.

國際協力活動에 있어서 지금까지의 韓國의 經驗으로 보면 가장 효과적인 協力は 日本과 대만의 경우에서 可能했다. 왜냐하면 韓國, 日本, 대만 이 세나라는 서로 이웃이기 때문이다.

이미 言及한 바와같이 原油價格은 世界의 景氣沈滯와 에너지節約政策으로 인해 下落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래 持續하지는 못할 것이다.

많은 아시아國家들은 앞으로 原子力産業을 開

發하는데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期待되고 있으며 또한 매우 類似한 風俗, 文化 및 哲學을 갖고 있고 地理的으로도 隣接하고 있으므로 參與國에 有益한 아시아地域 原子力協力機構를 設立하는 것이 妥當할 것이다.

原子力産業의 先導國인 美國에서의 原子力事業은 최근 工期遲延으로 인한 建設費 上昇, 복잡한 認許可節次 및 높은 利率때문에 經濟的 眞價 잃었다. 美國의 規制機關內에서 認許可節次를 개선하기 위한 某種의 措置가 취해지는 추세이지만 그것이 實現되려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必要할 것이다.

반면 原子力發電事業에 20年 以上の 經驗을 갖고 있는 日本은 財政과 技術能力의 면에서 아시아地域에서의 協力活動을 충분히 지원할 수 있게 成熟하였다고 믿어진다. 이와같은 점을 고려할 때, 아시아地域內 國家間的 더욱 密接한 協力關係 維持가 要望된다.

따라서 原子力産業會議나 參與國의 電力會社와 같은 産業체들로 구성된 公式的인 일종의 地域協力機構를 提案한다.

參與國의 協議에 의해 正式名稱이 결정될 이 地域原子力機構는 다음과 같은 分野를 취급할 것을 기대한다.

- 廢棄物의 處理·處分
- 原子力發電所의 情報交換
- Front and Back-end 核燃料사이클
- 放射線의 緊急狀況時 對策
- 기타 參與國의 關心事項

또한 전술한 地域協力會議는 會員國에서 순차적으로 開催할 것도 提案한다.

參加團 各單

金善昶	韓國電力公社 理事
鄭根謨	韓國電力技術(株) 社長
林明哉	웨스팅 하우스 뉴크리얼코리아 社長
朴貴容	韓國電力技術(株) 技術本部副本部長
盧英植	東亞建設産業(株) 理事
呂聖源	韓國原子力産業會議 部長